

사랑의 이름, 황진이



홍석중의 《황진이》를 단숨에 읽었다. '놈이'가 허구적 캐릭터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황진이와 놈이의 비극적 사랑에 마음을 앓는다. 운명적으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의 창출, 비극적 사랑의 극적 구도가 인상적이다. 홍석중의 《황진이》가 지닌 사연이 이러하니 서점에 깔려 있는, 수많은 '황진이' 관련 소설들로 눈을 돌리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 실제의 '황진이'를 대할 때조차 자꾸 홍석중의 《황진이》가 겹쳐지지 않을까 저어되는 것이다.

쉽게 소설에 손이 가지 않는 시대이다. 나 역시 한동안 소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소설의 세기는 가고 영화의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나름의 변명과 이유를 마련해 두고자 하였다. 어차피 소설은 나의 '아마추어' 분야, 영원한 취미의 영역이었으니 조금씩 지루해져가는 소설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소설과 멀어지고 있었다. 다만 가끔씩 취미의 시간이 그리울 때면 아쉬운 마음으로 소설 분야를 기웃거리곤 했는데, 최근 유독 '황진이'를 다루는 소설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게 의아스러웠다.

개인적 관심사라 한다면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 버혀내어..."라는 시조에 '뺨' 받아 고전 교육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황진이는 늘 나의 '초심初心'을 환기시키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개인적 관심사와 무관하게 황진이가 많은 소설가들에게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양반가의 서녀라는 심상치 않은 출생, 중세 여타의 여성들과 사뭇 다른 기생의 삶, 미모뿐만 아니라 경서, 음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출중한 능력 등등만으로도 이미 그녀는 소설 속 캐릭터로 재탄생할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을 터.

《황진이》를 다룬, 그 많은 소설 속에서 유독 홍석중의 《황진이》를 골라 손에 든 것은 북한 소설 최초로 남한의 만해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그 속에 그려 넣어졌다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조선 시대 소문 짜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황진이의 실재를 그려내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도대체 무슨 사연을 덧붙이려고 작자는 허구적 인물을 구상하여 넣은 것일까, 허구적 인물을 그려 넣으면서 작자가 더 말하고 싶었던 점은 무엇인가 단순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지만 그건 '사랑'의 문제이다. 세상에 범람

이 글을 쓴 조희정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했고 《인텔리겐차》(공저), 《대담한 책임기》(공저) 등의 저자이다. 현재 문화기획 퍼슨웹(www.personweb.co.kr) 기획위원, '공간' PLUS(www.spaceplus.or.kr) 기획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하는 사랑 이야기를 또 하나 더 보태는 것인가 생각하려는데 이상하게도 황진이와 높이의 사랑은 콘크리트 같이 굳어 있는 내 마음의 사소한 균열 사이로 파고든다.

주인공 황진이는 이승에서의 '사랑'을 거부하는 인물이었다. 자신을 짝사랑하던 인물이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저승에서 그와의 사랑을 약속함으로써 이승에서의 모든 사랑을 저버린 인물. 그러나 못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황진이의 수많은 스캔들은 그녀에게는 사소한 소동에 불과했다. 그러나 양반과 남자들의 허세와 위선을 들춰내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던져버린 황진이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들고 있던 '높이'의 사랑. 처음부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던 황진이와 높이의 사랑이지만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곧 지상 최대의 충만함이 된다. 나는 곧 네가 되고, 너는 곧 내가 되는 것이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아함을 유지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랑에 빠져든 순간 세상은 고통스럽고 자신은 초라해지지만 다른 한편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눈을 떠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를 던져주기도 한다. 어차피 사랑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유지함으로 범벅이 되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랑의 덫, 스캔들의 주인공인 황진에게서 사랑을 읽어내자니 조선 시대 황진이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인네가 되어 내 곁으로 한 발 다가선 느낌이다.

최근 사랑의 느닷없음을 노래한 시를 읽으며 무릎을 내려친 적이 있다. 장석남 시인의 <배를 매며>가 그것이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등 뒤로 털썩/밧줄이 날아와 나는/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사랑은/호젓한 부둣가에 유연히/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배를 매게 되는 것//<하락>

비릿한 바다 내음 속을 아무 생각 없이 거닐다가 느닷없는 부름을 받는다. "이 줄 좀 매주세요." 먼 바다를 향해하다 귀항하는 뱃사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랴. 던져지는 그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가 곧 사랑이라 하니

사태의 적실함을 포착하는 시인의 시선에 마음이 아리다. 사랑은 그런 것인가 보다. 어제와는 조금 달라진 반 발자국 이동한 지점에서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로 인하여 조금은 괴로운 풍요로움을 얻는 것.

나는 여전히 책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책 속의 허구적 인물들로 인해 마음 아프고 책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한다. 문자 속을 헤매고 있는 나를 향해 친구들은 세상을 돌아보라고 꾸짖기도 하지만, 책 속에서 헤매는 길이 삶과 이어져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황진이와 높이의 사랑, 장석남 시인의 시 한 편이 허구 속 한낱 이야기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내 삶 속으로 뛰어 들어와 나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며 나를 반 발자국쯤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켰듯이.

이렇듯 비틀비틀 책을 읽은 기쁨을 끄적거린 쪽글을 읽어주신 누군가에게 감사드린다. 그 분들 모두에게 삶과 책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한문**



《황진이》(1,2)
홍석중 지음 | 대훈닷컴 | 각권 약 330쪽 | 값 각권 9,500원